

2022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5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6. 28.(화), 14:00 ~ 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1층)
- ▣ 출석위원 : 장석하(위원장), 남효대, 백종오, 위광철, 이상석, 양은경,
최종덕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고지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 의결방식 및 회의록 공개

1. 법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담양 금성산성(사적)」 동문루 및 서문루 복원 | |
| 2 | 「경주 남산신성(사적)」 성벽보수공사 | |
| 3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사적)」 출입시설 누수 보수정비 | |
| 4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연지, 유릉 침전 월대 보수공사 | |

【심의사항】

안건번호 (복원 2022-5차-001)

1. 담양 금성산성 동문루 및 서문루 복원

가. 제안사항

-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담양 금성산성」 동문루 및 서문루 등 복원사업에 대한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잔존유구와 '96년 조사자료, 종합정비계획보고서('96년) 및 기존 복원된 내·외 남문루와 북문루(개거식) 등을 토대로 동문루 및 서문루 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설계(안)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담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담양 금성산성(사적)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등
- 지정일 : 1991. 08. 24.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담양 금성산성 동문루 및 서문루 복원 설계
- 사업예산 : '21년 : 130,000천원(설계), '22년 : 900,000천원(서문루 복원)
- 공사예정금액 : 1,290,200천원
- 사업지침
 - 2022년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서문루의 복원을 시행한다.
 - 2021년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멸실된 동문루, 서문루 복원을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 사업내용

<서문루 건물개요>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면적	21.79㎡	기둥	원기둥
주칸	정면3칸, 측면1칸	처마	흘처마
양식	무익공	천정	연등천장
구조	3량가구	지붕	우진각 지붕
기단	자연석 육축 위	기둥크기	우주 D330 평주 D300
주초석	자연석 담방주초석	처마길이	정면 주심에서 1,350mm
마루	우물마루	높이	육축 상부에서 5,069mm

<서문루 육축 정비>

- 서문지 우측 석축 해체 보수 : 길이(20.2m), 높이(현황높이)
- 서문지 좌측 석축 해체 보수 : 길이(11.95m), 높이(현황높이)
- 배면 좌측 등성계단 설치(폭 1.5m)
- 육축 상부 T150 마감석 쌓기, 통로 바닥 T150 마감석 설치

<동문루 건물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면적	18.88㎡	기둥	원기둥
주칸	정면3칸, 측면1칸	처마	홀처마
양식	무익공	천정	연등천장
구조	3량가구	지붕	우진각 지붕
기단	자연석 육축 위	기둥크기	우주 D330 평주 D300
주초석	자연석 담방주초석	처마길이	정면 중심에서 1,320mm
마루	우물마루	높이	육축 상부에서 5,180mm

<동문루 육축 정비>

- 동문지 우측 석축 해체 보수 : 길이(13.18m), 높이(현황높이)
- 동문지 좌측 석축 해체 보수 : 길이(19.8m), 높이(현황높이)
- 동문지 좌측 기존 등성계단 해체보수
- 육축 상부 T150 마감석 쌓기, 통로 바닥 T150 마감석 설치

(4) 보수이력

- 1988년 잡목제거 및 지표조사
- 1989년 잡목제거 및 학술조사서 발간
- 1990~94년 잡목제거
- 1995년~96년 서문옹성(40m), 서문성벽(16m), 남문성벽(59m)보수
- 1996년 잡목제거, 남문성벽보수(97m), 금성산성 보수, 정비, 보존계획 용역수립, 연동사 삼층석탑보수
- 1997년 남문지 여장보수(500m)
- 1998년 성곽보수(183m)
- 1999년 동문지 보수, 남문지 성곽보수(233m)
- 2000년 내·남문루 복원, 내성보수(194m)
- 2001년 내성보수(183m)
- 2002년 서문지측 성곽 및 치성2개소 보수(70m)
- 2003년 서문지측 성곽 보수(83m)
- 2004년 북문지 및 주변 성곽 보수(130m)
- 2005년 북문지 우측 성곽 보수(84.1m), 북문지 좌측 성곽 보수(9.70m)

- 2006년 2005년도에 이어 북문지 우측 성곽 보수(96.8m)
- 2007년 2006년도에 이어 북문지 우측 성곽 보수(88.0m)
- 2008년 서문지~철마봉 우측 성곽 보수(104.3m), 동문~북문간 탐방로 성곽 정비(27.7m)
- 2009년 서문지~철마봉 우측 성곽 보수(116.7m)
- 2010년 서문지~철마봉 우측 성곽 보수(101.0m)
- 2011년 서문지~철마봉 우측 성곽 보수(120.0m)
- 2012년 북문루 복원
- 2013년 남문지 좌측 여담보수(221.6m)
- 2015년 내남문지 성곽보수(16.1m), 내동문지구간 성벽 및 여장보수(26.4m)
- 2016년 내남문지 성벽보수(21m)
- 2017년 성곽주변 잡목제거, 충용문보수
- 2018년 서문지 우측 성벽보수(17.7m)
- 2020년 서문지 좌측 성벽보수(11.1m)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2. 02. 25 / 000(수리기술위원), 000(수리기술전문위원) >

- 금성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초창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409년에 개축하였다. 임진왜란 때 파괴된 것을 1610년 개수하고 1622년 대장청을 건립하였으며 1653년 성첩을 중수한 것으로 전한다. 이후 동학농민운동 때 객사, 보국사 등 10여 동의 관아와 군사시설이 불탔다.
1994년부터 성곽복원사업을 착수하여 내남문, 서문, 동문을 복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금성산성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초창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주로 형성되었으며 동학농민운동 때 불탄 것으로 보여진다.
- 조사 및 복원
 - 금성산성에 관한 조사는 1989년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둘레 길이 6,486m, 내성 둘레길이 859m로 조사
 - 1996년 금성산성정비계획 수립
 - 1996년 서문지 옹벽 및 육축 보수
 - 1999년 동문지 육축 보수
 - 2000년 외남문루, 내남문루 복원
 - 2012년 북문루 복원
- 동문지
 - 현재 초석 및 문지도리석 잔존
 - '96년 조사 당시 초석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
 - 현재 상단의 초석은 99년 수리 시 설치한 것으로 추정

- 서문지
 - 현재 초석 및 문지도리석 잔존
 - '96년 조사에서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조사
 - 보존상태 가장 양호
- 고지도
 - 해동지도에 서문은 홍예식, 동문은 개거식으로 표현
 - 여지도는 동문, 서문 모두 홍예식
 - 광여도에는 동문은 홍예식, 서문은 개거식으로 표현
 - 지방지도는 서문은 홍예식
 - 금성산성도는 개거식으로 표현
 - 담양부 금성진도는 개거식으로 표현
- 종합
 - 현재 남아있는 유구는 초석과 문지도리석
 - 문의 형태는 고지도 등에 개거식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유적이 적고 이전의 기록도 명확하지 않으며 조사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 1989년 지표조사 이후 괄목할만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먼저 발굴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 사전조사가 종합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이후 복원 시점을 설정하고,
 - 문루 양식과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또한, 금성산성 정비계획은 1997년에 수립
 - 조사 후 정비계획 재수립 필요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잔존유구와 '96년 조사자료, 종합정비계획보고서('96년) 및 기존 복원된 내·외 남문루와 북문루(개거식) 등을 토대로 동문루 및 서문루를 복원하는 사업임.
- 용척은 기 복원된 문루의 주칸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복원된 3개 문루의 평균값을 적용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문지의 경우 '96년 조사당시에 초석 일부가 노출되어 있어 측정해 본 결과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 도면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당시 조사자료 및 종합정비계획에 제시된 주칸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문지도리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와 규모가 정하여졌음.
- 통로의 폭과 육축의 높이는 홍예나 평거식보다 그 규모가 작고 여러 고지도에 개거식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 복원된 문루도 개거식임.

- 육축의 높이는 현재 미석 및 여장이 남아 있는 구간을 참조하여 설정되었음.
- 일부 고지도에서 우진각 지붕이 확인되고 기존 복원된 외남문루와 북문루가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머름 또한 설치되어 있음.
- 동문지의 경우 '96년 조사당시 육축 상단에는 초석으로 보이는 유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조사자료 및 종합정비계획에 제시된 주칸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문지도리석 및 장군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와 규모가 정하여졌으며, 다른 사항은 서문지에 준하고 있음.
- 초석 하부에 대한 지내력 테스트를 통해 상부에 복원되는 문루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하부 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통로 바닥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작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함이 좋겠음.
- 기존 석축 및 석축 해체 후 재설치 구간과 유실구간(현장 채집 및 부족시 반입)의 조화와 안정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검토가 필요함.
- 치목 후 헬기로 운반하여 현장에서는 조립(20일정도)만 이루어지기는 하나 우천시 목부재 보호를 위해 우장막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두 문루 부분의 의미있는 보수관련자료 및 북문루 복원(2012년)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확보하여 금회 설계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기술지도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기술지도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할 계획임.

바. 의결사항

- 보류
 - 설계 추진을 위한 복원 관련 조사 및 연구(각종 문헌자료 및 기 수리자료 확보 및 분석)를 통해 복원의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검토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2. 경주 남산신성(사적) 성벽 보수공사

가. 제안사항

-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남산신성(사적)」 성벽 보수공사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해 사업은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경주 남산신성'의 일부 붕괴된 성벽을 보수하고자 함.
※ 성벽 보수구간에 대해 발굴조사를 시행(2020.11. 2.~2020.12.23.)하였으며, 2020년 12월 발굴조사 약보고서가 완료되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신성(사적)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56번지 외
 - 지정일 : 1963. 1.21.
- (3) 신청내용(수리공사 개요)
 - 사업명 : 경주 남산신성 성벽 보수공사
 - 사업예산 : 700,000천원
 - 공사예정금액 : 929,958천원
 - 사업지침
 - 2022년 :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성벽 복원정비를 실시한다.
 - 2021년 : 발굴 결과에 근거하여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다.
 - 사업내용 : 경주 남산신성(사적)
【성벽공사】
 - 성벽 해체/보수 54.53m
【주변 정비공사】
 - 잔디식재 : 161.93m²
 - 수목벌채 : 47주
 - 수리이력 등

년도	정비내용	비고
2009년	경주 남산신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20년	성벽붕괴 구간 발굴조사	약보고서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2. 2월 (설계자문) / 보수분과 위원 000, 관계전문가 000>

- 성벽보수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외벽은 대부분 장방형 석재를 사용하여 '品'자형 바른층 쌓기 기법으로 축조하였으며, 적심석은 면석과 유사한 석재를 사용하여 성벽 통과선과 직교되도록 안치하였으며 적심부 내벽은 자연할석을 사용하여 4~5단의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성벽보수구간의 체성 외벽 면석의 높이는 잔존유구가 가장 양호한 지점에서 8단 1.4m를 나타내고 있으며, 축조기법으로 볼 때 7세기 말 문무왕대에 수·개축한 것으로 파악됨.
- 성벽 보수는 잔존유구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잔존 적심부의 상부 너비를 1.5m 정도로 하고, 30°내외의 경사를 유지하도록 '적심석 노출'보수 방법으로 시행하여 외벽 면석 높이를 구간마다 설정하여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음.
- 성벽 보수는 구재를 최대한 수습하여 사용하고, 신재 반입시에는 보수공사 구간 면석의 석질을 분석한 후 재질과 색상면에서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성벽 상부에 자생한 수목은 성벽 붕괴의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제거하여 더 이상 성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2. 6.17. (현지조사) / 복원정비분과 위원 000, 000, 전문위원 000>

- 2020년 성곽보수를 목적으로 한 발굴조사(약 56m) 결과, 전 구간에서 보축이 확인되었으며, 보축은 일정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단면 삼각형 형태로 경사를 주고 축조한 7세기 이후 신라산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면석은 화강암을 방형, 장방형, 세장형으로 다음은 석재를 이용하여 바른층 쌓기 등 내·외벽에서 보수의 흔적이 없으므로 초축된 성벽으로 밝히고 있으나 면석은 구간별, 상하와 좌우의 석재 간에 가공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성벽 : 폭 약 6.5m, 외벽 잔존 높이 3.65m(면석 최대 13단)
- 현 설계도서는 소나무 전체 제거 및 석재(100%)를 반입하여 외벽을 축조하는 등 뒤채움부 경사면(약 30°) 유지와 그 상부에 너비 1.5m정도의 회곽로 형태를 설치하는 계획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남산신성이 지닌 가치보존과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의 제반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도서를 보완·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성벽 주변의 붕괴·매몰된 석재를 제거하고 체성을 노출 후, 채집된 석재로 보수하는 것만으로도 남산신성이 지니는 가치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음.
 - 소나무는 성벽 보존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만 선별 제거
 - 석재채집으로 지형 보강은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 보축은 도면 보완 등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금회 사업은 우수 및 수목 등으로 훼손된 성벽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성벽보수 및 수목제거가 필요한 상황임.
- 다만, 경주 남산신성 전체 둘레 약 4.9km 중 금회 사업구간(54.53m)에서만 발굴 조사가 시행된 상황으로, 추후 성곽의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전까지는 추가 훼손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비만을 시행하였으면 좋겠음.
 - 붕괴된 성곽 외벽은 현장에서 수집되어 있는 기존 성곽부재(면석 및 잡석 등)를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며,
 - 발굴조사 약보고서에 따르면 성곽 내벽은 외벽의 면석과 다르게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재로 경사진 지형을 따라 내탁 형태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계도서와 같이 내벽을 2단 높이로 외부로 노출되는 방안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
- 성곽 외벽 앞 탐방로 및 석축은 원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사업에서는 제외토록 함.
 - 외벽 하부 단면 삼각형의 보축시설은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비.
- 성곽 내측의 탐방로는 우수가 성곽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구배로 계획토록 함.
- 수목정비는 해체범위의 최소화 등을 위해 외벽 면석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수목 일부만 제거하도록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다름 사항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보완 후 시행토록 함>
 - 금회 보수 시 기 수집된 석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재 보충은 최소화하여 종합정비계획 수립 전까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비만 실시토록 함.
 - 수목 정비도 성벽 보존에 문제가 없는 구간은 최대한 존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3.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출입시설 누수 보수정비

가. 제안사항

-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출입시설 누수방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최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령왕릉, 5호분, 6호분의 출입시설을 중심으로 누수가 관찰되고 있어, 이에 누수 방지를 위한 보강 조치를 취하고자 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공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사적
 -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산5-2 일원
 - 지 정 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무령왕릉, 5호분, 6호분 출입시설 부분 누수방지층 보강(진흙다짐) 계획 검토
- (4) 신청인 의견
 - 무령왕릉, 5호분, 6호분 상부 누수방지층은 강회다짐층 위에 진흙다짐층으로 구성되어 거의 누수가 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이나, 근대에 새로이 축조된 출입시설 부분은 강회다짐층만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강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백제왕도추진단)

- 현재 보수정비 계획안은 기존 보수정비 이력 및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당해 왕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출입시설 부분만의 보수안이며, 소규모의 절토와 보강만으로 누수방지 조치를 취하여 고분환경을 양호하게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검토 받아 추진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무령왕릉 내부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인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검토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4. 남양주 홍릉과 유릉 연지, 유릉 침전 월대 보수공사

가. 제안사항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유릉 침전 월대 보수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릉 침전 월대 및 계단 석축을 정비하고자 보수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 지 정 일 : 1970.5.26.
- (3) 신청내용
 - 유릉 침전 월대 계단석(7개소)의 보수방법에 대한 검토

라. 자문의견

< 2022.6.10. / 문화재수리기술위원 000, 문화재위원 000 >

- 기존 콘크리트 기초는 상태가 양호하고 지반이 안정화되어 있으므로 존치하는 것이 적절함.
- 석축용 사고석을 재사용하되 뒷채움하고, 콘크리트는 현장비빔타설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박석은 설계대로 교체하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 증가를 고려할 것
- 계단 속채움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해당 현상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는 하나 통석으로 교체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 것(금회 검토사항)

마. 검토의견(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현재 설계안은 다른 왕릉의 월대 계단과 같은 형태로 추정하여 설계되어 장대석(통석) 계단의 해체 후 재설치로 계획되었으나, 보수공사를 위한 해체과정에서 계단 내부 속채움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함.
- 유릉 월대 계단의 보수공사 시 속채움을 현황과 같이 콘크리트로 보수하는 것에 대하여 수리기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콘크리트 재료 분석, 근대건축 재료 관련 관계전문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계단 내 콘크리트가 유령 건립 당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금회 보수시에도 건립 당시 시공 수법을 존중하여 이를 적용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